

수피아여고 포워드 고현지 여자농구 미래로 쑥쑥 크다

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KB국민은행 지명

광주 수피아여고의 포워드 고현지(182.2cm)가 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광주 KB국민은행 유니폼을 입었다.

고현지는 지난 4일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신인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로 KB국민은행의 지명을 받았다.

180cm가 넘는 장신 포워드 고현지는 지난해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2학년임에도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아 큰 관심을 모았다.

신체와 운동능력을 측정하는 컴바인에서 고현지는 신장을 비롯해 맥스 버티컬 점프 리치(303.4cm), 맥스 버티컬 점프 높이(73.4cm), 원스팬(187.0cm)에서 1위를 차지했다.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과 1990년 제11회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농구 국가대표로 활약한 '전설' 조문주 전 삼천포여고 코치의 딸인 그녀는 지난해 7월 FIBA U17 여자농구월드컵과 9월 FIBA U18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공교롭게도 고현지가 지명받은 KB스타즈는 그의 어머니인 조문주 전 코치가 1984년부터 1992년까지 활약했던 팀이다. 조 전 코치는 국민은행 여자농구단에서만 원클럽맨으로 뛰며 두 차례 농구대잔치 우승을 이끌었다.

KB의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고현지는 "1순위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한 뒤 "KB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키워주신 부모님, 언니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잠시 울먹이던 고현지는 "1순위로 KB에 오게 돼서 영광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



KB의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고현지(오른쪽)가 김완수 KB 감독과 기념촬영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여자프로농구연맹(WKBL) 제공>

는데, KB에 오기 위해 액땀을 한 것 같다"며 "팀에 빨리 적응해서 얼마(전 여자농구 국가대표 조문주)처럼 팀에 도움이 되고 팀을 빛낼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개인적으로 노란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KB에서 오게 돼서 좋다"며 활짝 웃었다.

고현지를 품에 안은 김완수 KB 감독은 "고현지를 1~2년 본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지켜본 결과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좀 더 갖고 뒀으면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 4일 정읍 내장산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PLK CUP' 호남권역 포볼 챔피언십 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퍼시픽링크스코리아 제공>

퍼시픽링크스코리아 PLK컵 연중 골프리그 뜬다

국내 최대 글로벌 골프멤버십 퍼시픽링크스코리아(이하 PLK)가 주최하는 '피엘케이 컵(PLK CUP)' 연중 골프리그가 이색 아마추어 골프대회로 주목받고 있다.

퍼시픽링크스코리아(PLK·대표이사 장욱영)는 지난 4일 정읍 내장산골프앤리조트에서 'PLK CUP' 호남권역 포볼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회원과 비회원이 어우러진 42개팀 168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지난 영남권역 포볼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엔 내장산CC에서 치러진 호남지역 포볼챔피언십 대회에서는 1위를 차지한 팀에게 투어링스골프 여행상품권(600만원 상당)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여기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마제스티 퍼터, 보이스 캐디, 보스턴백, 토트백 등이 참가선수들에게 제공됐다.

PLK CUP 포볼 챔피언십은 이후 수도권역 지역결선 포볼 챔피언십은 오는 18일 안성 베네스CC에서 가질 예정이다.

PLK가 진행하는 연중 골프 리그 PLK CUP 대회는 멤버십 회원들에게 다양한 골프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취지로 10억대의 규모로 만들어졌다.

지역 결선을 거쳐 전국 결선을 치러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골프대회는 결선대회 때마다 퍼시픽링크스코리아 멤버십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상품도 푸짐하게 내걸고 있다. 경기

정읍서 호남권역 포볼 챔피언십 42팀 168명 참가 성공리 마무리 동호회 대항전 등 대회도 다양 골프 멤버십 혜택 등 입지 다져

방식에 따라 결선 대회의 종류도 포볼 챔피언십, 스트로크 챔피언십, 동호회 대항전 등으로 다양하다.

PLKCUP은 멤버십 회원과 비회원이 어우러진 1800명 규모가 출전하는 시드전으로 출발했다. 지난 5월 시작해 8월 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린 시드전을 통해 각 지역의 참가선수들이 결선에 진출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볼챔피언십이 끝나면 실력전으로 치러지는 'PLK CUP스트로크 챔피언십'이 10월 말 개최된다. 최고의 선수를 가려는 실력전인 만큼 3000만원 상당의 2024년 마스터스 토너먼트 직관투어 초청권이 시상품으로 걸렸다.

성상우 퍼시픽링크스코리아 부사장은 "PLK 컵 스트로크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내년 '명인 열전' 마스터스 토너먼트 현장에서 골프 전설들의 경기를 직관하는 기회를 잡게 된다"며 "갈수록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PLK 컵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행사로 준비 중인 'PLK CUP 동호회 대항전'은 전국의 골프 동호회, 단체, 법인 사내 동호회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 자격 범위를 넓혀서 모집한다. 전국 예선을 걸쳐 11월 말 결선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올해 회원 수 1만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퍼시픽링크스코리아는 PLK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골프 여행, 대회, 아카데미 등 전 분야에서 PLK멤버십의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PLK 멤버십 하나로 골프 라이프의 전부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골프 멤버십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PLK는 150곳이 넘는 국내 명문 골프 코스의 라운드 예약뿐 아니라 전 세계 메이저 골프 경기 관람, 세계 명문 골프 코스 라운드, 항공, 호텔 예약 및 관광, 쇼핑 등 폭넓은 골프 여행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성 부사장은 "PLK멤버십 회원이 되면 150곳 넘는 국내 명문 골프코스 라운드 예약뿐 아니라 전 세계 메이저 골프 경기 관람, 세계 100대코스 라운드 여행과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멤버십 회원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골프 라운지 이용과 멤버십을 애용할수록 혜택을 더 제공하는 회원 관리 제도인 '클럽 더 그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서구청 이정함·강영미, 펜싱 국대 승선



이정함



강영미

광주 서구청 펜싱팀 이정함(32)과 강영미(38)가 2024년 국가대표로 활약한다.

이정함은 지난 3~4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김창환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정함은 64강 권오민(한국국제대)을 15-12, 32강 장효민(울산시청)을 12-11, 16강 심승환(부산시청)을 9-8, 8강 황현일(울산시청)을 15-10, 4강 권재선(세종시체육회)을 15-9로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이정함은 결승서 마세건(부산시청)을 15-12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하며 대표선발 포인트 32점을 획득했다. 이로써 이정함은 대표 선발에 포인트가 반영되는 2월 전국남녀종목별오픈(64강 2점)과 5월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32강 4점), 8월 제63회 대

통령배펜싱선수권(16강 8점)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 46점으로 7위를 기록했다.

이정함은 총 8명을 뽑는 국가대표로 확정되면서 2019~2020시즌 이후 4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돼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강영미는 여자 에페대표팀에 재승선했다.

강영미는 올해 2월 양구 종목별 오픈(1위 32점), 5월 국가대표선발전(8강 15점), 8월 흥천 대동령배(32강 4점), 이번 김창환배(8강 14점) 합산 성적(총 65점)과 세계랭킹(16위 안에 들면 가산점) 가산점을 받아 2024 파리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됐다.

2009년 처음 태극마크를 단 강영미는 2011년까지 3년 연속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2015년 다시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후 내리 10번째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장애인선수단, 체전 대비 강화훈련 돌입

탁구·론볼 등 31개 종목 745명...종합 5위 목표 경기력 키우기



전남장애인탁구선수단이 오는 11월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화훈련을 하고 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남장애인선수단이 오는 11월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화훈련에 돌입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출전하는 총 31개 종목의 전남장애인선수단 745명(선수 458·임원 및 보호자 287명)이 종목별 강화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선수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체력과 실전 능력을 향상시켜 종합 5위 달성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구슬땀을 흘린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선수단 사기진작을 위해 종목별 훈련비를 지원하고 현지 격려로 나서고 있다.

김은래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강화훈련을 통해 체력과 실전 능력을 향상시켜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선수관리와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장애인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오픈하이머
- 2관 오픈하이머, 웰리멘탈, 밀수
- 3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4관 일주일간 친구
- 5관 타겟, 생츠퍼러: 마법의 소원나무
- 6관 잠
- 9관 달짝지근해: 7510
- 7관 씨네커플 잠
- 8관 씨네커플 잠, 밀수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극단 코끼리들이 웃는다
몰질
일시 : 2023-09-15(금)-16(토)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원형극장(야외)
문의 : 062-613-8235

GAC 재가관 시리즈 - 포시즌4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 with 손열음
일시 : 2023-09-1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